



동포들이 굶주려 죽어간 것은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기에 역사 앞에서 참회하기 위해 1000일 기도가 시작됐다. 1분1초도 쉬지 않고 이어진 1000일 기도는 초등학생, 주부, 교사, 목사 등 각계각층에서 하루평균 27명, 총 27,000명이 참가했다.



정토회는 천일정진 회향식 전날부터 26일까지 전국 법당에서 회향기념 3000배 기도를 실시했다.



정토회는 천일정진 회향식을 앞두고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을 순례하며 범례인을 실시했다. 사진은 회원들이 대구북회관에서 109배 참회정진하는 모습.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본단의 정신적 장애요소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뛰어 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에게 쌓여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녹이고, 죽음에 직면해서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의 가슴에 쌓인 감정 역시 녹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1000일 정진 회향식 중 정토회 지도부 사법론 스님의 말이다.

11월 24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1000여 정토회자들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정진 회향식 1부 행사인 '통일미레를 준비하는 143회 연속 대화마당' 회향기념 대화마당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정토회 24시간 1000일 정진은 2000년 1월 1일 백두산에 올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이 서로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을 세우고, 같은 해 3월 1일 입계식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이어지는 24시간 기도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정진하는 통일염원 철야정진기도, 북한 어린이에게 영양식을 보내기 위한 통일돼지 저금통



천일정진기간동안 통일미레를 준비하는 연속대화마당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금요일에 진행됐다. 김종철 북색명문 발행인이 11월15일 '하늬된 한반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꾼다'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통일민들레 홀씨’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정토회, 민족화합기원 24시간 천일정진 회향

키우기 북한 어린이를 돕는 거리모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진행된 금요일 통일미레를 준비하는 연속대화마당.

이러한 사업들은 본단의 세월 수백만의 동포들이 굶주려 죽어간 것은 바로 다른 아닌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기에 이를 역사 앞에서 깊이 참회하기 위해서였다. 스스로가 깨치고 누우쳐서 다가올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 주체자로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었다.

1000일 기도는 초등학생, 주부, 교사, 목사님 등 하루평균 27명, 총 27,000여명, 통

동 법당까지 매일 택시를 뺐던 회향. 통일돼지 키우는 일을 하기 위해 인천에서 서울까지 지하철을 3번 갈아타면서 매일 법당에 나온 회향 소아마비로 한 쪽 다리가 불편한 예도 불구하고 회향기념 3천배 정진에 참여한 회향 이 모든 통일민들레 들의 정성이 모여 1000일 회향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1000일은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동행한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헌력은 기도 동참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북한 모두가 반목과 대립에서 화해와 용

사부대중들의 뜨거운 박수로 글을 맺자.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돌이켜보면 1000일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기회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가 이웃과 나라,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작은 힘이었지만, 1000일을 쉬지 않고 이어왔던 우리들의 헌력이 남북한의 동포들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행사는 1000일간의 정진과 활동을 소개하는 '통일민들레는 이렇게 꽃피었습니다' 영상물 상영에 이어 이윤구 총장, 박관서 참여불교재단장, 심상대 대표 등의 축사, 아름다운 통일민들레 포상으로 이어졌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직을 하며 매일 오후 8-9시, 오전 2-5시, 두 차례 기도 정진을 했던 권운정 씨, 어머니인 한미영 씨의 아들인 황태호, 영태 등 가족이 기도정진에 동참한 대호네 가족 등이 각각 통일민들레상, 아름다운 도반상을 수상했다.

마우리 행사인 4부 가수 강산에 씨의 공연에서는 1000일을 정진해 온 정토회자들의 한바탕 대동놀이도 펼쳐졌다.

기뻐진 땅이나 척박한 땅 어느 곳이나 가지 않고 자신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민들레. 파란 하늘에 홀씨로 날아올라 전국에, 온 한반도에, 전 인류에 퍼져나간 통일민들레. 이번 천일정진 회향을 계기로 한 알의 홀씨에서 수천 수만의 민들레로 피어날 통일민들레 홀씨들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냉정의 이데올로기에 얼어붙은 가슴 가슴마다 희망의 꽃을 피워내길 모든 불자들은 바라고 있다.

천일기도 2만7천, 철야정진 3,938명 참가
 2억8천만원 모금해 북한어린이 돕기지원
 "1초도 쉬지않은 원력 남북통일로 이어지길"

일일원 철야정진 기도는 총 3,938명이 참가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시작해 초, 중, 고 학생층으로 퍼져나간 통일돼지 저금통과 유애경 마산 정토회 회원이 시작해 전국으로 번진 거리모금 등 북한동포돕기 모금 총액 281,204,113원은 합경북도 청진고 아원에 지원됐다. 제1기 통일미레를 이야기한다 부터 제13기 통일미레와 인류문명의 미래 까지 총 143회 연속 통일대화마당은 박노해 시인, 리영희 교수, 백기완 선생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봉천동에서 서초

서로 변화하기 위한 심없는 정진이었다.

24일 열린 회향 기념행사는 통일운동의 새로운 흐름 그 출발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이윤구 인재대 총장, 법륜 스님 등이 참여한 회향기념 대화마당으로 시작했다. 2부 회향정진에 이어 3부 회향기념식은 이정희 무용단이 'DMZ에서 춤추다'로 시작을 열었다.

남북 본단의 현실과 이를 뛰어넘으려는 격렬한 몸짓이 회향식에 참석한



'통일돼지'에 모인 정성은 모두 북한어린이 돕기에 쓰여졌다. 통일돼지에 들어있는 동전을 모으고 있는 정토회 대표 유수스님과 어린이.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인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폭우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고 하심장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보오는 요통, 신경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